



# Over the IT!

## 온더아이티 김범수 대표

단정한 옷차림에 보조개 들어간 웃음이 매력적인 김범수 대표.

위기에 몰린 국내 KMS솔루션시장에서 순항을 계속하고 있는

'온더아이티' 호의 선장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부드러운 모습이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했던가. 한방울 한방울의 물방울을

모아 국내 KMS시장이라는 단단한 바위를 관통했던 것처럼

현재 김범수 대표는 세계시장을 뚫을 물방울을 준비 중이다.

# 본

황의 골이 깊다고들 하지만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전문업체인 온더아이티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KMS란 기업의 구성원들이 축적하고 있는 개별지식을 체계화하여 공유함으로써 기업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지식관리시스템. 온더아이티는 창사 5년만인 올 상반기 부쩍 자라나 작년 총매출에 근접하는 3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국내 KMS시장을 견인 중이다. 회사를 설립 1년 만에 우량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될성부른 온더아이티는 현재 제조, 서비스, 금융 등 약 80여 개 업체에 자사의 지식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상태이다.

## 준비된 경영자

온더아이티의 성장은 김범수 대표의 치밀한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대학졸업 후 삼성전자와 삼성SDS에서 10여 년 간 근무한 바 있는 김대표는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회사를 만들겠다고 결심하였다. 확고한 목표를 설정한 후 그는 개발팀, 인사팀, SW사업팀 등 여러 부서를 자진하여 옮겨 다니면서 차근차근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욕심이 많아 회사를 다니면서도 남들보다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식관리시스템을 접하게 된거죠. 이거다 싶어 직원 7명과 함께 창업을 결심했어요. 시장진출 시기도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창업을 결심하고도 1년 간 삼성SDS에서 때를 기다린 그는 자신의 회사를 만들 준비를 차분하게 쌓아갔다. 회사설립 후에는 연구소를 세워 컨설팅업무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다.

“온더아이티(ONTHEIT)라는 사명은 이때 생각한 것이예요. IT기반의 어떤 솔루션이건 다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뭐든 잘할 수 있다고 당당히 자부합니다.”

잘 해내겠다는 자기최면과 잘할 수 있다는 준비된 자신감으로 짓게 되었다는 사명 ‘ONTHEIT’. 회사이름에서 그의 목적의식과 도전정신을 엿볼 수 있다. 대기업의 촉망받은 연구원에서 모든 준비를 끝내고 경영자로 변신한 그의 도전은 그 자체가 진정한 의미로서의 ‘벤처정신’ 이 아닐까.

## 인간중심의 경영

그는 꼼꼼하고 정갈한 느낌의 사람이다. 부친이 난(蘭)농원을 경영하는 탓도 있겠지만, 회사 곳곳 눈가는 곳마다 다 소곳이 난이 있어 직원들의 기분을 좋게 한다. 이런 회사분위기에선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지식경영솔루션업체의 대표답게 인간중심의 경영을 도모한다.

“경영은 사람관리라고 생각합니다. KMS솔루션이라는 것도 사람을 중심에 둔 기술이죠. 직원과 직원, 직원과 제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이 떠날 때가 가장 슬프다는 김범수 대표. 그런 그의 마음이 통했는지 온더아이티의 이직률은 업계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귀뜸한다.

“가끔 대학생들의 기술에 놀라기도 합니다. 뛰어난 기술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인맥이지요. 네트워크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짧게나마 직장생활을 경험해보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큰 자산입니다.”

그의 경험이 묻어 있기에 힘이 느껴진다. 한발한발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김범수 대표의 꼼꼼함과 사람 중심의 경영. 신뢰와 애사심으로 뭉친 직원들. 그들이 만든 KMS솔루션 ‘Knowledge Plus’ 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꼼꼼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온더아이티는 국내 KMS시장을 견인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그 영역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또, 보다 넓은 시장으로 눈을 돌려 중국진출을 위한 차이나텔레콤과의 협상과 실리콘밸리를 전초기지로 한 미국시장 진출도 모색중인 단계라고 한다.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김대표는 다시 한번 차분히 준비할 것이다. 그와 직원들이 만들어낸 우수한 제품과 신뢰를 무기로 세계 속을 순항하는 ‘OVER THE IT’ 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김 범 수 대 표 의 리 셋 포 인 트 !

초등학교시절 김범수 대표는 전국 대회를 두 번이나 제패한 실력있는 배드민턴 선수였다. 지금도 만능 스포츠맨으로 통하는 이유는 운동으로 다져진 기초체력 때문. 이런 몸에 밴 페어플레이정신과 강한 승부욕이 오늘날의 온더아이티를 있게 한 원동력이다.